정보

카미유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나단조 작품 61

개요

- 작곡가 : 카미유 생상스 (Camille Saint-Saëns, 1835–1921)
- 작품명 : 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나단조 (Violin Concerto No. 3 in B minor), 작품 61(R. 198)
- 작곡 : 1879년 착수설 , 1880년 완성으로 정리되는 범위
- 헌정 : 파블로 데 사라사테 (Pablo de Sarasate)
- 초연 : 1880년 10월 15일 , 함부르크 , 사라사테 독주 ·아돌프 게오르크 베어 지휘
- 장르 : 바이올린 협주곡
- 구성 : `Allegro non troppo` · `Andantino quasi allegretto` · `Molto moderato e maestoso — Allegro non troppo`
- 연주 시간 : 약 28–30분

IMSLP: https://imslp.org/wiki/Violin_Concerto_No.3%2C_Op.61_(Saint-Sa%C3%ABns,_Camille)

Bru Zane: https://www.bruzanemediabase.com/en/exploration/works/concerto-violon-orchestre-ndeg-3-camille-saint-saens

이 협주곡은 전통적인 빠름 –느림 –빠름의 세 악장 배열을 따른다 . 제 1악장은 오케스트라의 긴 서주 없이 현악 트레몰로 위로 독주 바이올린이 즉시 들어오고 , 제 2악장은 6/8 바르카롤 또는 시칠리아노 성격의 실내악적 대화로 긴장을 누그러뜨린다 . 제 3악장은 레치타티보를 닮은 느린 도입에서 출발해 빠른 주제와 코랄풍 코다로 나아간다 . 사라사테의 기교를 위한 독주 언어와 생상스의 명료한 관현악이 결합된 작품으로 해설되지만 , “ 스페인풍 ”이라는 표현은 프로그램 자료의 관찰로 구분해야 한다 .

작곡과 초연

Bru Zane과 IMSLP는 1879년 착수에서 1880년 완성에 이르는 범위를 제시하고 ,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1880년 3월 작곡으로 좁혀 기록한다 . 이 차이는 초기 구상일과 완성 시점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에서 생긴다 . 작품은 사라사테에게 헌정되었고 , 1880년 10월 15일 함부르크에서 사라사테가 독주하고 아돌프 게오르크

베어가 지휘해 처음 연주되었다 .

일부 공연 해설은 1881년 1월 2일 파리 샤틀레에서 사라사테가 연주한 일을 “초연 ”으로 부르기도 한다. 함부르크 기록과 충돌하는 이 표현은 세계 초연이 아니라 파리에서의 이른 공연 또는 프랑스 수용의 시작으로 분리하는 편이 정확하다. 1913년의 Allegro de concert 바이올린 ·피아노 전사는 협주곡 일부를 옮긴 별도 작품이지, 협주곡 자체의 개정판이 아니다.

출판 정보와 자료

IMSLP의 서지는 Durand·Schoenewerk & Cie.가 낸 1881년 총보와, Durand가 1880년에 낸 독주 파트를 서로 다른 판으로 기록한다. BnF 권위 데이터는 첫 판을 1880년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총보와 독주 파트의 발행 연도를 하나의 날짜로 평탄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필 원고도 1880년 자료로 식별된다.

소요 시간

Madison Symphony Orchestra는 29분, IMSLP는 30분, Wikipedia와 특정 녹음은 약 28분 또는 27분 38 초를 제시한다. 판본과 지휘 템포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로 약 28–30분을 예상할 수 있다.

편성

독주 바이올린과 플루트 2(둘째는 피콜로 겸용),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현악기로 편성된다. 오케스트라는 독주자를 두껍게 덮기보다 목관과 금관의 짧은 응답, 현악의
트레몰로와 코랄풍 층으로 색을 바꾼다. 세부 악기 수는 프로그램 자료와 판본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대 공연의 보강 편성을 원전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악장별 구성

I. Allegro non troppo

현악 트레몰로 위에서 독주 바이올린이 거의 즉시 작품을 시작한다. 나단조의 낮은 음역에서 출발한 열정적인 주제가 반음으로 움직이는 동기를 만들고, 독주자의 이중음 ·삼중음이 밀도를 높인다. 목관과 호른, 트럼펫은 독주가 제시한 재료에 단계적으로 응답한다. 장조로 이동하는 두 번째 주제는 셋잇단음표와 부드러운 선율로 대비를 이루며, 발전부와 짧은 재현부를 거쳐 독주자의 높은 음역으로 올라간다. 일부 프로그램 노트는
전통적인 독주 카덴차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 구체적인 카덴차 표기는 판본과 악보 대조로 확인할 사항이다.

II. Andantino quasi allegretto

6/8의 흔들림을 가진 바르카롤 또는 시칠리아노 성격의 느린 악장이다. 독주 바이올린은 오보에 ·플루트 · 클라리넷과 선율을 주고받고, 현악은 물결치는 반주를 유지한다. 큰 음량의 절정 대신 각 악기가 짧게 발화하고 물러나는 실내악적 호흡이 중심이다. Madison과 NUS Conservatory의 해설은 높은 바이올린 하모닉스와
낮은 클라리넷의 음역 대비, 마지막에 오보에가 선율을 되돌려 주는 장면을 주요 음색 사례로 든다. 이 악장의

조성은 자료마다 명시가 엇갈리므로 , 바르카롤의 리듬과 대화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편이 안전하다.

III. Molto moderato e maestoso – Allegro non troppo

마지막 악장은 극적인 레치타티보와 카덴차 같은 독주 제스처로 문을 연다. 빠른 부분에서는 나단조의
날카로운 주제와 라장조의 서정적 두 번째 주제, 사장조의 새 선율이 차례로 나타난다. 현악에서 시작한 코랄풍 선율은 독주 바이올린과 금관으로 넓어지고, 기교적인 질주가 그 위를 관통한다. 끝의 나장조 코다는 금관의 장대한 울림과 독주자의 높은 음역을 결합한다. Aspen과 NUS의 “스페인적 색채 ”라는 표현은 사라사테를
위한 작품이라는 맥락과 빠른 발음법을 설명하는 프로그램 해설로 이해해야 하며, 특정 스페인 민요를
인용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수용과 녹음

함부르크 초연 뒤 1881년 파리 공연은 사라사테와 생상스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프랑스 청중에게 알린 초기 사례가 되었다. Bru Zane은 이 곡이 생상스의 네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실제 레퍼토리에 가장 오래
남았다고 평가하지만 , 이는 기관의 수용사적 판단이지 실연 횟수 통계는 아니다.

Naxos Classical Archives는 장 푸르네 지휘 Lamoureux Concerts Orchestra와 아르튀르 그뤼미오 독주의 1957년 녹음을 식별하며, 세 악장 합계 27분 38초의 트랙 시간을 제시한다. Gramophone의 2007년 리뷰는 장자크 칸토로프 ·Tapiola Sinfonietta·Kees Bakels의 음반에서 제 2악장의 시칠리아노와 제 3악장의 코랄 · 코다를 비평적으로 관찰한다. 이 기록은 특정 음반의 연주 맥락과 청취 분석을 보여 주며, 어느 해석을
정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주요 자료

IMSLP, “Violin Concerto No. 3, Op. 61”

Centre de musique romantique française / Bru Zane Mediabase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R. 198

Aspen Music Festival, 작품 프로그램

Madison Symphony Orchestra, Michael Allsen, 프로그램 노트

Yong Siew Toh Conservatory, Yue-Ning Foo, 프로그램 노트

Naxos Classical Archives, Grumiaux/Fournet 녹음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35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5:35 UTC by 안준영